

## 이라크, 전쟁 위협 속에서도 석유를 꾸준히 수출

### 이라크, 2월에 일일 평균 1.7백만 배럴의 원유 수출

이라크의 석유수출을 석유식량프로그램(Oil-for-Food)을 통해 통제하는 유엔의 이라크 프로그램국(Office of the Iraq Program)은 2월 마지막 주의 이라크 석유수출이 13.2백만 배럴(일일 평균 1.9백만 배럴)에 이르렀으며, 평균 가격은 배럴당 \$28.70 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2월에 모두 48.5백만 배럴로서 1월에 비해 4.6%가 증가하였다. 이라크는 2001, 2002년에도 비공식수출을 합하여 일일 평균 2백만 배럴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준비가 거의 완료되면서 석유수출은 전쟁 발발에 대한 수입자의 우려와 전쟁프리미엄 때문에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마지막 주 수출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서 56%를 수입하였다. 미국의 이라크로부터의 석유 수입은 2001년에 일일 평균 79.5만 배럴, 2002년 1-11월에는 44.9만 배럴이었다.

### 이라크 정부, 유전의 안전 확인

한편 이라크 석유부 차관은 미·영 군의 침공시 이라크 정부가 자국의 유전을 폭파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이라크 정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라크 전쟁 후의 세계 석유수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이라크가 유전을 폭파하면 전쟁 후 이라크의 석유생산능력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그만큼 석유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세계경제의 회복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정부가 자국 유전의 안전을 확인해줌으로써 이라크 전쟁후의 석유가격 불안 요인중 하나가 줄어들었다.

### 미국은 이라크 유전 안전 확보를 주요 군사적 목표로 삼아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가 유전에 폭파장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라크의 유전을 살리고 유전 화재가 가져올 막대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유전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덕 체니 부통령이 부통령이 되기까지 CEO로 몸을 담았

---

던 미국 굴지의 석유회사인 헬리버튼의 자회사인 Kellogg Brown & Root 가 미 국방부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는 것이다. 용역의 내용은, 이라크가 유전을 폭파할 경우의 손실과 복구 관련 예상, 그리고 유전 화재의 진압 관리이다.

선임연구원 강준수  
jkang@koreaexim.go.kr